

인문학적 글쓰기를 하는 방법

● ● ●
한 건 우
서울대 인문대학
미학과 학부생

처음 이 글을 부탁받았을 때, 어떤 글을 써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서울대 학생들이 저보다 글을 잘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우수리포트 공모대회에서 상을 탈 수 있도록 심사위원께서 높게 봐주신 부분은, 전반적인 글쓰기 능력보다도 인문학적인 글쓰기의 능력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인문학적 글쓰기의 영역에서 조언을 드려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쓴 보고서는, 크게 작가의 개인사와 해당 시대의 사상사를 검토해, 작가의 사상적 위치를 추적하는 부분과, 그 사상적 위치를 중심으로 작가의 다섯 개의 작품들을 각각 비평하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때, 작가의 개인사적 자료를 가지고 작가의 내면 변화를 추측하거나, 작품의 디테일을 분석해 작품에 담긴 작가의 사상을 추측하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그러한 인문학적인 글쓰기나 사고의 능력이 많이 활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조언은 인문학적 글쓰기, 특히 문학작품 분석을 하는 수업에서의 글쓰기를 하려거나, 아예 글을 쓰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한 글을 쓰는 과정과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 조그만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책을 느리게 읽어라

인문학적 리포트, 그중에서도 문학리포트를 쓰려면 제일 먼저 문학책을 읽는 것이 기본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느리게’ 읽는다는 부분에 대해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글을 최대한 빨리 읽는 습관이 중요하다 여겨지니까요. 하지만 저는 책을 빨리 읽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최대한 아주 천천히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학책을 읽는 속도가 매우 느린 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읽는 속도의 세, 네 배

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한 시간 만에 다 읽어버리는 책도 제가 읽으면 하루 종일이 걸리기도 하지요. 대신 저는 최대한 꼼꼼히 읽습니다. 모든 단어 하나하나 모르는 게 있으면 의미를 사전에서 찾고, 제가 모르는 물건이나 장소가 나오면, 인터넷으로 그 이미지나 실제 위치를 검색하면서 읽습니다. 실제로 저는 염상섭의 「암야」라는 단편소설을 읽을 때, 주인공이 광화문역 근처에서 돌아다니는 그 실제 동선을 네이버지도로 찾아가면서 읽었습니다. 또 거기 등장하는 다리나 건물이 지금도 남아있는지도 찾아봤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현재 없는 다리 중에서, '네이버 뉴스라이브리'에서 검색한, 일제 시대에 발행된 신문에서 그 다리의 이름을 찾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그 거리가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상상하면, 그 거리를 걷는 주인공의 심리도 더 정확히 상상할 수가 있지요. 이 과정은 실제 보고서를 쓸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렇게 가깝고 익숙한 지역에 대한 자세하고 풍부한 자료를 찾아가면서 작품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마 한국현대문학 전공자들만의 특권이겠지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 특권을 이용해서 가끔 그런 단편소설에 나온 실제 지역을 찾아가서 그 정확한 동선을 음미하면서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재미없고 덕후같아 보이지만, 하는 사람한테는 재밌답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읽으면서 최대한 자세히 상상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영화로 만들 것처럼, 제 머릿속에 소설 속 상황을 최대한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지요. 인물의 옷차림, 인물의 얼굴 주름, 얼굴형 이런 것들을 재현하다보면, 사실 영화보다도 더 생생하게 소설 속 상황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눈앞에 보이고 만져지는 사람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소설을 읽기 시작하면,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하지만, 폭 빠져서 읽곤 해서, 어느 정도 읽고 나면 다른 세계에 갔다 온 양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지긴 해도 그 맛은, 영화 정도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지요. 영화감상이 눈에 보이는 것을 경험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소설을 읽는 것은 오감이 살아있는 세계와 그것을 경험하는 작가의 살아있는 정신을 만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천천히 읽다가 또 의미 있다 싶은 부분은 포스트잇을 붙여놓습니다. 좀 독특하거나 제 보고서의 주제와 관련 있겠다 싶은 부분은 여지없이 포스트잇을 붙여놓습니다. 저는 가끔 침대에 누워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침대 옆에 벽에 포스트잇 패키지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책 읽다가 팔을 뻗어서 포스트잇을 딱딱 붙이지요. 그렇게 붙이면서 읽다보면 사실 포스트잇을 많이 쓰게 되는데, 책 한 권당 적어도 스무 개 정도는 붙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면, 나중에 보고서에 인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지지요.

아무래도 천천히 책을 읽으려면 낮에는 시간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책을 밤에 자기 전에 읽습니다. 제가 저녁형 인간이기도 하고, 밤에 고요할 때 책을 읽으면 집중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읽는 것은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학 리포트에 시간을 쓸 여유가 없거나, 아주 빠르게 여러 장의 리포트를 토해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느리게 읽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실 이렇게 글을 천천히 읽으려는 제 습관에 약간 병적인 면이 있기도 합니다. 남들이 빨리 읽으라는 게 싫어서 일부러 최대한 느리게 읽는 것이기도 하나까요. 하지만 적어도 문학이라는 종류의 글을 읽을 때에는, 그것이 가진 완전한 맛을 음미하기 위해서는, 비문학과는 다르게 조금은 천천히 읽는 것도 한 번쯤 해볼 만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권해봅니다.

2. 정보조사를 하라

1번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글을 쓸 때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책읽기와 정보조사에 보내는 것 같습니다. 데드라인 적어도 2주, 많으면 1달 전부터 정보조사를 합니다. 자료는 한글자료의 경우 RISS에서, 영어자료의 경우 구글 학술 검색에서 검색을 합니다. 구글 학술 검색에서 논문을 찾고, 해당 논문이 나오면, 논문 제목을 복사한 뒤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학외접속’을 한 다음, 제목을 붙여넣기 하고 검색하면 해당 논문이 뜨는데, 이때 ‘원문 이용가능’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밑에 ‘온라인’을 클릭한 뒤에 ‘이용 가능한 리소스’ 옆에 하이퍼링크된 영문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논문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아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이제 논문을 검색하는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키워드로 검색을 합니다. 만약에 이기영의 ‘고향’에 대해 논문을 쓰는 경우, ‘이기영’, ‘고향’을 같이 치고 검색을 합니다. 가끔 검색결과가 많으면 논문 주제를 좁혀서 ‘이기영’ ‘고향’ ‘사상’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더 치거나, 학위논문을 따로 검색하거나 학위논문 중에서도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이런 식으로 대학을 한정하여 필터링을 하거나, 국내학술지 논문을 따로 검색합니다.

키워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괜찮은 논문을 찾은 뒤에, 논문에서 인용한 다른 논문들을 찾아가면서 곁가지를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아나키즘이 염상섭의 작품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주제를 갖고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 주제는 거의 2000년대 이후부터 연구가 활발해진, 비교적 새로운 주제였는데, 이 주제에 관해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잘 정리했다고 보는 최인숙의 「염상섭 문학의 개인주의」라는 박사학위문을 주로 참고하고, 그 논문에서 언급된 다른 논문들을 참고했습니다. 또한 염상섭 연구의 기본적인 방향과 작품 분석을 알기 위해서 김윤식, 김종균 각각의 『염상섭연구』라는 책들을 참고했습니다. 또한,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된 개별 작품들은 작품마다

제목을 검색하여 관련 논문들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주제가 비교적 새로운 주제였고, 분석 대상이 된 중·단편 작품들도 비교적 지금껏 활발히 연구되어오지 않은 작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검토해야 할 자료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자료들을 검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모두 검토한 뒤에, 저는 적어도 마감일 1주일 전까지는 초고를 완성합니다. 그 전까지 계속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머릿속으로 구상하다가 1주일 전날이 되기까지 2일~5일 정도의 기간 동안 실 새 없이 초고를 써내는 것이지요. 그런 뒤에, 각주, 문법과 같은 형식적인 부분을 재빨리 완성하고, 남은 1주일 동안은 생각 날 때마다 다시 읽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저는 원래 제가 쓴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작업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마감일까지 급하게 글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여유를 두고 글을 쓰고, 수정을 하면, 글 자체도 한결 일관되고 부드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3. 글은 살아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보조사와 같은, 글쓰기 이전의 작업은 잘 하지만, 정작 글을 쓰고자 하면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들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보고서 형식의 글이라는 것이 시험에서 주관식, 서술형을 쓸 때와는 달리, 자기 마음대로 써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계획하거나 준비한 것에 비례해 완벽한 글이 나오지 않는다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봅시다.

글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생명체는 몸의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떼어내면 전체 생명체에 영향이 가서 이상이 오거나 죽게 되죠. 글 역시도 마치 생명체의 세포와 같은, 여러 문장과 접속사로 이루어진 일종의 생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부분을 떼어내거나 새로운 문장을 집어넣으면 글 전체에 영향이 가게 되지요. 따라서 어떠한 글이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움직여나가는데, 여기에 자신이 미리 계획한 방향으로 억지로 어떤 부분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부분을 첨가하게 되면, 이 글은 생명을 잃고 이상한 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글을 쓰기 전에 개요를 정하고 그 개요에 맞게 정보를 집어넣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글쓰기 전에 개요를 쓰는 습관은 글쓰기 수업에서 항상 강조되는 것으로,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하지요. 하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그 개요가 종이 위가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한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요는 말 그대로 글을 쓰기 위한 토대이지, 글을 우겨넣는 틀은 아니니까요. 개요는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정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글을 쓸 때는 항상 글이 어떤 방향으로 될지 모른다는 준비를 하고, 순발력을 가지고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비록 전반적인 주제나 개요는 일정할지 몰라도, 세부적인 부분은 예상한 것과 다르게 결정되기도 하니까요. 그때마다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주장을 충분한 근거와 함께 자신 있게 전개해 나가면 됩니다.

3. 말하듯이 글을 써라

제가 복학해서 처음 들은 강의에서, 저는 교수님의 강의를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노트북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신기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3시간동안 받아 적은 그 강의원고가, 보고서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논리의 흐름이 분명하고 각 주장이 충분한 논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글’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석학들의 적지 않은 수의 명저들은 그들의 강의 내용을 학생들이 받아 적은 강의록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즉, 우리의 말과 글, 더 나아가 우리의 사고와 말과 글은, 과장을 보태서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 됩니다. 즉, 우리는 글 쓰듯이 말을 하며, 말하듯이 글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4. 논문을 읽어라

하지만 무턱대고 말하듯이 글을 쓰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될 리는 없습니다. 어떤 나라의 언어를 말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거나 글을 읽으면서, 그들의 단어와 말투를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도 많은 보고서 형식의 글들을 읽어야 합니다. RISS에 가서 자신이 쓰려는 분야의 양질의 논문들을 찾아 읽고 그 논문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말투, 즉, 논리전개방식이나 학술 용어, 각주 다는 방식에 익숙해져야겠지요. 물론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직접 논문들을 찾아 읽을 필요 없이, 수업에서 교수님들께서 참고문헌으로 올려주시는 논문이나 책, 혹은 교수님께서 나눠주시는 발췌자료만을 열심히 읽어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PPT만 보지 말고, PPT가 참고한 원래의 책을 찾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논문이나 단행본들을 읽을 때, 어려운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읽는 것도, 학문적인 사고의 기초를 쌓는 데에 대단히 중요하지요.

5. 많이 써 보아라

글을 많이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에 글을 자주 써보다 보면 좋은 점이, 글을 쓰는 속도가 빨라져서, 거의 말하는 속도와 비슷하게 글이 써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빨리 쓴다고 더 좋은 글이 나오지는 않지만, 빨리 쓴 글은 더듬지 않습니다. 즉, 보다 읽기에 편하고 논리도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개가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대학교에 오고 나서, 매일 밤마다 컴퓨터를 켜고 생각나는 것을 아주 조금이라도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의 습관인데, 그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때는 공책에다 썼고, 이제는 컴퓨터에 쓰게 되었다는 점이지요—아무래도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는 컴퓨터로 글을 쓰는 것에 익숙해져야 유리하겠지요. 학교에서 집까지 1시간에서 2시간 내지의 긴 시간동안 혼자 하교를 했는데, 그때 하던 많은 생각들을 기억해두었다가 밤에 적으면 A4 반 페이지에서 많으면 4페이지 정도까지 쓰게 되고는 했습니다. 엄밀히 말해 리포트 글쓰기 형식으로 쓴 것은 아니었지만, 덕분에 글을 보다 편하게 쓰게 되었고, 그래서 보고서 분량에 대한 압박감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면 하루에 보통 A4로 4페이지, 인용까지 합해서 많으면 7, 8페이지 정도를 쓰는데, 그래서인지 분량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은 덜한 편입니다—물론 분량이 많다고 더 좋은 글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도 비교적 좀 더 편하고, 구체적으로 제 주장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습관은, 글을 쓰는 능력만큼이나, 사고하는 능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글로 사유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사유하는 것의 차이는, 계산을 적어가면서 하는 것과 암산으로만 하는 것의 차이만큼이나 큼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다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형성되고, 또 그러한 논리를 더 깊게 전개할 수 있어지고, 이미 글로 적혀진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반박하고 여기에 새로운 생각을 보태면서 보다 창의적인 사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연습을 한 덕분에 보고서를 쓸 때 어렵지 않게 논리를 깊고 자세한 수준까지 전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컴퓨터에 써 놓았던 몇몇 쪽글들은 나중에 실제로 보고서를 쓸 때 중요한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6. 맺음말

지금까지 글쓰기를 하는 여러 팁들을 드렸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의 내용을 만드는 과정, 즉, 1번과 2번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을 쓰기 전, 얼마나 많은 자료를 얼마나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는가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지금 스스로 글을 못 쓴다고 주눅 들어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평소에 어떤 주제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았거나, 자료도 많이 읽어보았거나, 혹은 그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보고서나 논문을 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응원합니다!